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11.(목) 06:00 < 7.11.(목) 석간 > 배포 2024. 7. 10.(수)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1.(목) 서울 설가온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비에이치아이·국제전기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9개사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이하 두산)가 참여하여 그간 추진된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금융·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원전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거나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기업들을 초청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 발굴·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❶원전 대기업(한수원·두산 등)의 일감 세부계획 공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적정 투자시점 도출 및 수주계획 수립 편의성 제공, ❷원전 생태계 퇴직자 활용 지원으로 최근 원전업계 전반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❸해외 수출 관련 시장분석·전략수립·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독자수출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수원·두산에 ❶일감 발주 세부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❷원전업계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 ❸수출전략 마련 및 인증취득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과 '(가칭)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 (044-203-53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